진리 평화 창조

발행인 김 동 선
편집부인 김 형 필
편집장 문 석 진
발행소 한국외국어대학교
외 대 신 문 사
전화 ⑤ 7128 (직통)
131 서울동대문구이문동270-1
인쇄인 조선일보사 방 무 영

외대학보

(1958. 3. 27. 제 3 종우편물인가)
(등록번호 제 다 253호)

제 3 6 7 호
<주간>
1983년 5월 20일
매주 금요일 발행
(1년 구독료 5천원)
창간 1960년 7월1일
복간 1955년 4월11일

THE OE DAE HAGBO PUBLISHED BY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우리말의 쓰임새 (37) 오지랖이넓다

오지랖이 넓다는 말은 「주제넘어서 아무일에나 쓸데없이 참견하는 짓」을 가리킨다. 「오지랖 넓다」로 <이>를 빼고 쓸 수도 있다. 또 얌치없게 행동할 때도 쓸수 있는 말이다.

「오지랖」이란 웃옷이나 웃도리에 입는 겉옷의 앞자락을 가리키는 말. 그런데 이 앞자락이 균형을 잃을 정도로 크면 볼품이 없는 일이 아니겠는가. 잘들고 잘 말하고 몸가짐을 바로해야한다는 교훈적인 낱말이라 하겠다.

「서클연합회」 구성난관

서클:서클활성화 위한 선결과제
학생처:독립해서 단체구성하는건 불필요

지난 4월25일 제 3 차 운영위원회에서는 학생들의 여론을 반영, 「서클연합회」 구성을 결의하고 총단에서 이의 결성을 추진하기로 했었다.

학교측은 그 이후 「서클연합회」구성에 관해 몇차례 학교에 건의하였으나 학교측은 『학생활동 2원화와 예기치않은 사건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내세워 『허가할수 없다』는 기본 자세를 분명히했다.

한편 지난 5월 7일 총단이 「학교측에 대한 건의문」에서도 같은 요구를 하였으나 여전히 「인원다」는 입장을 병백히 했으며, 그이후 건의문에 대한 답변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총단이 일괄사표를 제출하여 「서클연합회」 구성에 대한 그이상의 대화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있는 실정이다.

학교측은 또 『작서클은 학도호국단에 속해 있는데, 독립해서 단체구성하는건 불필요할뿐아니라,기구만 늘리는 일이되며, 실제 서클장이 모여서 회의, 계획들을 세워나가면되지, 굳이 조직새인 연합회가 필요하지 않다』고못박았으나 서클관계 학생들은 『호국단의 업무량상 40개에달하는 서클의 전반적인 문제를 대변하기에는 호국단의 한 부서로서는 힘이 못미치고, 서클문제 일부분의 업무수행에 불과해 서클의 활성화를 위해서 제대로의 역할을 못하고있다』고 보고 『서클문제는 연합회에 전결권을 주고 직접적인 대화 창구도 마련해 서클문제는 서클이 자체 해결토록 하는 자율적 여건을 조성해줘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또한 학교측의 학생기구 2원화에 대한 우려에 대해 종학생장 조도조(Ph·3)군은 『부정적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서클지원 문제 등을 상호 조절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압력단체라기 보다는 호국단의 건전한 협조체제를 이룰수 있어 학생활동의 활성화와 상호 발전을 도모하게 될 것이다』고 긍정적 측면을 말하고 『2학기 때에는 이의 취지를 살려 가능한 결성되도록 추진해 보겠다』는 내용을 밝혔다.

이번 학기에 들어 수차례의 서클장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언급이 되었는데 「서클운영의 원활함을 기하고 학생용화 분위기조성, 서클간의 발전을 위한 공동모색,서클끼리의 교내상호교류, 서클단의 측제, 전체서클을 위한 대화의 직접적이고 단일한 창구」 등 서클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서클연합회 구성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서클장회의에서는「서클협의회 구성」을 건의문으로 작성 각 서클장연명으로 학교측에 올린바 있으나, 모임자체를 인정하지 않을뿐아니라 공신력이 없다는 이유로 답변이 없었다고 한다.

한편 「서클관계 학생들은 「서클협의회」가 인정되지 않으면, 서클연합의 어떤 형식도 공신력이 없다는 이유로 임의의 제지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말하고, 학교측에서 더무리협된 시작으로만보지말것과 학생의견을 존중해 호의적으로 대처해줄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학교육의 제문제」 장인숙교수 특강
교육대학원

교육대학원은 「대학교육의 제문제」라는 주제로 장 인숙 (전 문교부차관) 교수를 초빙 3차 특강을 실시한다.

학생들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이번 특강은 5월 25일 4시부터 8시까지 실시하며 장소는 교양학관 6210호이다.

학교측총단에 사표철회 요구

지난 10일 총단의 일괄사표제출 이후 학교측은 계속 총단의 사표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대해 총단측은 「만족할만한 답변을 얻지 못하면 사표를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그이상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상태이다.

또한 「이번 사표는 단순한 제스처만이 아니다」라는 뜻을 나타낸 총단의 입장에 대해 학교측은 「사표를 철회한 후 대화를 계속해야한다」는 서로 다른입장이 대립하고있다. 한편 「그동안 학생대외기구의기능이 중단되어 여러가지어려움이 있음을」을 많은 학생들은 무려하고 「사표처리 결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1회 법·상체전 폐막 모의올림픽 23일개최

법·상 체전 종합우승 경제학과
무질서,판정 불만으로 시비 잇달아

5월17일 개막되었던 제 1회 법·상체전이 19일 폐회되었다.

29일 오후 5시 거행된 시상식에서 총530점을 얻어 종합우승을 차지한 경제학과가 우승컵을 전달받았다.

이번 법·상체전은 지난해까지 법정·상경대가 각각 학장배 체육대회로 따로 개최해 오던 것을 처음으로 통합 시행했으며, 경기방식은 예선에서 각과별 대항을 거쳐 준결에서부터 같이 겨루었다.

3일간에 걸쳐, 축구, 농구, 배구, 줄다리기, 육상등 6개종목을 각과별로 경기를 가졌으며, 번외경기로 개막전에 본교 축구부와 「서강대학의 축구경기」도 가졌었다.

이번 체전에서는 심판의 불수개입 (정외과 : 행정학과 축구), 부정선수 개입 (경제 : 경영 줄다리기), 학생들의 무질서등이 빈번히 발생해, 실판의 자질, 학생들의 질서의식, 운영의 미숙등이 지적되기도 했다.

법·상체전 폐막에 이어 등·서양어대, 사범대, 아간강좌 어학부등 외국어전공 학생들의 통합행사인 제16회 모의올림픽이 23일부터 27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23일 입장식에 이어 고적대시범과 신체조시범 교수축구경기등 개막행사를 가진뒤 27일까지 남·녀로 나뉘어 10여개 종목을 각과별로 겨루게 된다. 경기종목은 씨수 군이 우승을 차지했다.

이문첫점

법·상체전이 어렵게 막을 내렸다. 승부에 집착한 과열된 경쟁의식과 아마추어 심판의 운영의 묘도 살리지 못해 인화도 단절도 화합의 모습도 찾을길 없이 갈등의 극한으로만 치달았다.

지성의 여과지로도 찌꺼기를 거르지 못하고 조각난 「껍질」 상태로 「지성」이 우리를 무릅하게 한다.

「껍질」이 제 줘(軌)를 찾아 한데 어우러진「이성」과「양보」의 신명나는 한판이 아쉽다. <사진은 16일 오후 법·상체전이 열리고 있는 대운동장에서 모과가 심판 판정에 불복, 항의하는 장면. >

목요음악반 등록취소

본교의 유일한 음악서클인 목요음악반이 등록취소 되었다. 학생처에따르면 『등록갱신 접수하게 되어있는 「지도교수취임승낙서」가 본서상에 나타나있는 지도교수와 사전협의없이 학생들 임의로 작성한 것이어서 인정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학생처는 2학기때지도교수를 다시 위촉하면 승인해 주겠다고 했으며 톰은 20일부터 1학기간 폐쇄하는데, 그동안 정기모임등이 있을경우 타 장의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겠다고말했다.

우편물접수창구 개선
각 교학과에서 접수

학생처는 우편물 접수의 경기로 줄다리기와 육상을 가지며 구기종목으로 남자의 경우 축구, 농구, 배구, 야구, 핸드볼등 3개를 선택하고, 여자의 경우, 농구, 배구, 소프트볼등 2개를 선택하여 경기를 갖고,그외 번외경기로 학생처장배 탁구, 씨름경기를 가질 예정이다.

한편 이번 행사로 개막식날인 5월23일 1, 2보시와 폐회식날인 27일 7, 8보시는 전면휴강을 하며 행사기간중에는 과별로 휴강처리한다.

모의유니버시아드도 폐막

용인캠퍼스에서 17일 개막되었던 제 4회 모의유니버시아드 대회가 19일 폐회 되었다.

이 대회에는 어문대학 13개 학과와 사회과학대학 2개 학과가 참가해, 축구, 배구, 농구, 줄다리기, 여자농구, 소프트볼, 육상경기를 각과별로 가졌다.

종합우승은 총 800점을 얻은 서반아어과가 차지했으며, 19일 폐회식에서 우승기를 전달받았다.

한편 이번 대회에는 마라톤 114명 경기가 포함되어 있어 약700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루었으며, 정재경(F·1)군이 우승을 차지했다.

외대 송 페스티발 방송국 주최

외대교육방송국(F B S)은 제4회 「HUFS Song Festival」을 6월10일(금), 오후 4시30분에본교강당에서개최한다.

참가 자격은 외대 재학생 (중창은 타교생이 포함되어도 무방) 에 한하며 참가부문은 솔로, 중창 부문이고, 예선은 5월30일 (월) 오후 5:00 시청각 교육원 2210호에서 실시한다.

참가 신청서는 5월17일(화)에서 5월30일 (금) 까지 외대 교육 방송국에서 접수한다.

우리 사회엔 감동이 없다

행인의자

▲4월이 「잔인한달」이라면 5월은 푸르른 달이다. 신록도 푸르며 하늘도 푸르며 마음도 푸르다.

5월이 이처럼 발랄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아마도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할 수 있는 날들을 많이 가졌기때문이라 할 것이다.

어린이 날, 어버이 날, 스승의 날,부처님 오신 날 ····과연 선하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우리의 민족성답게 무슨무슨 날이 많기도하다.

이러한 날들은 그저 공휴일이 하나씩 많아서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닌,진정으로 이들에게 감사하고 작은 보답이라도 표시하자는 뜻에서 제정된 것일게다.

▲그러나 인간성 상실의 시대라 불리는 현대에 이르러 그 은혜로움에 감사하는 마음은 점차 희박해지고 오히려 응든 몇 푼의 이유로 부모를 상해하는 일들은 새삼스럽지 않은것이 되었음을 어련 상식으로 이해해야할 지 지끈한가.

며무기 이번에 발생한 교사구타사건은 스승의 날 바로 다음 날에 일어난 일이라 더욱 경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학생에게 조차 그 가치가 외면당한지금, 선생이 설땅은 어디나고 시종 을떡거렸다는 보도를 접할때 우린 속연 보다 인간적인 「그 무엇」이 더 절실한 심정이다.

▲편리하고 풍부한 물질적 풍족을 얼위하는 우리는 동경, 아름다움,감사와 같은 인간이 가질 수있는 가장 순수한 감정들을 하나씩 상실해 가고 있는것 같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에게서 사라져가고 있는 것은「감동」이다. 이미 모든 것이 규격화되고 편리하게 포장되어 더는 새로울 것도 신기할 것도 없다. 마찬가지로 부모의 타이름이나 은사의가르침은 이미 감동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만큼 우리 베틀은 차가운 삶뜸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세상이 문명의 이기로 가득찼다해도 결국 인간과 인간의 만남으로 이루어진 삶이다.

서로가 서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좀더 따뜻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냉담하게 차단된 마음을 틈고, 작은 틀일 하나에도 감동을 느낄 줄 아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때이다.

<손 지애>

박술음 학장 소장도서 기증
463권 「취하문고」로 설치

본교 제2,5대 학장을 지냈고 지난 2월13일 별세한 고 박술음박사의 소장도서 463권이 고인의 가족들에 의해 본교 도서관에 4월21일 기증되었다.

이에 도서관은 그의 호를 빌린 「취하문고(醉霞文庫)」를 새로 설치하고 여기에 비치할 예정인데 문고목록도 곧 발간할 예정이다.

이번 「취하문고」는 「월창문고」에 이은 본교 도서관의 두번째 개인문고이다.

아마추어 야구제전 20일, 29일 경기 예정

제 3회 아마추어야구제전이 5월 8일 개막되어 6월 12일까지 각 대학 야구장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야구제전은 본교를비롯 성대·단대·항공대·숭전대·광운대·국민대·홍익대등 9개 대학이 출전하여 A, B조로 나눠 각각 3~4게임을 갖게된다.

본교는 5월15일 홍대와의 경기를 본교에서 가져 첫 승리를 거뒀으며, 앞으로의 일정은 20일 숭전대와 11시부터 숭전대구장에서, 29일 단국대와 2시부터 숭전대구장에서 갖게된다.

사진반 정기전시회 22일 유네스코회관

본교 사진반에서 주최하는 제 21회 사진반(Angles)정기전시회가 5월 22일(일)오전 11시 명동 유네스코 회관 11층 전시실에서 개최된다.

용인 F.B.S 시설 확충 절실
스튜디오 6월 완공 예정

용인캠퍼스 F·B·S가 개강 이후 2달동안 정규방송을 못해오다 5월16일부터 정상적인 방송을 하고 있다.

2달동안 정규방송을 못했던 이유를 설무국장은 「방송국의이전문제와 자체녹음 방송시설이 긴는 관계로 방송을 위해 수업을 빠져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히고 현재 설치중인 스튜디오가 6월중순경 완공되면 정상적인 정규방송을 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용인캠퍼스 학생들은 「시설을 늘려 뉴스와 음악등을 잘들릴 수 있도록 조속히 시정 해 주길 바란다」고 말하고 있다.

5월25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는 김 태근 (J·3)작 「정(靜)」을 포함, 총 24명이 출품한 70여 작품이 선보일 예정이며 교외에서 전시하기는 작년에 이어 올해로 두번째다.

클레라 예방접종 5월24일 단하루

학생처는 5월24일 오전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보건실에서 83년도 전망부대 입소예정자인 2학년을 대상으로 클레라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전망 입소대상자는 입소시 접종후 교부하는 예방접종카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AFKN 녹화방영 계획표 발표

시청각 교육원은 6월17일까지의 AFKN 프로그램을 녹화방영 키로 하고 그 계획을 발표했다. 매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방영될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5월23일부터 27일까지는 「아담과 릴리」, 「도나휴」 30일부터 6월3일까지 「다라스 1·2부」 6일부터 10일까지 「엘로 레디」와 「하와이 5-0」, 13일부터 17일까지 「아들과 딸들」, 「도나휴」가 각각 방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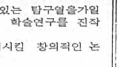
「민족 사관」강연회

아간강좌 학도호국단은 5월23일 (월) 오후 6시부터 본교 대강당에서 초청 임승국교수(경지대)를 2강연회를 개최한다.

영자 신문 특강 용인 캠퍼스

용인캠퍼스 학도호국단 학술부 주최로 영자신문 특강이 5월23일 6월22일까지 한달간 실시된다.

이특강은 교내지원으로 교내의 학우들 실력이 한층과 일어날 것을 위한 것으로 매주 월·수·금 3차례에 걸쳐서 오후 5시30분부터 7시까지 본관 206호실에서 실시되며 교재는 무료로 제공될 예정이라고 한다.



▲「서클연합회」 구성 난관
—불방울이 바위틈을날도 있겠지.

▲법·상체전,심판자질은 제로 참극
—캠퍼스에도 프로심판 시대가 임박하나?

제1회 「외대학술상」 논문모집

본보에서는 학내 민족공도조성을 정착시키고, 학생들의 의욕있는 탐구열을가일층 북돋우며, 전달 인문, 사회, 자연과학분야의 폭넓고 새로운 학술연구를 진작시키는 일환으로 제1회 외대학술상을 마련하였다.

원 학술분야의 탐변하는 상황에 감안하고 회교한기상을 정립시킬 창의적인 논문을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모집부문 : 인문과학분야, 사회과학분야, 자연과학분야

원고매수 : 작 90~100매내외

제 출 처 : 외대학보학술부 (학생회관 309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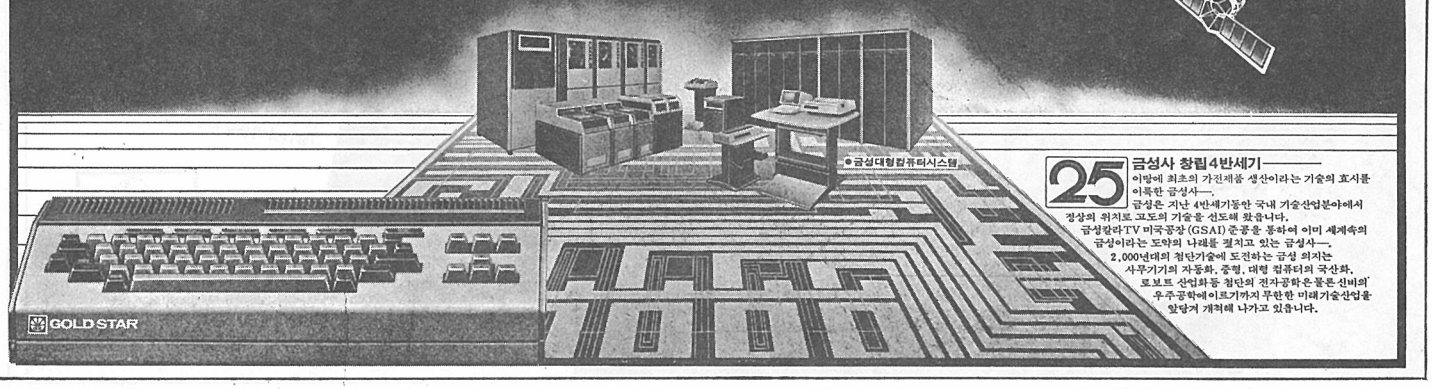
대 상 : 본교재학생 (대학원생포함)

원고마감 : 1983년 5월31일

상금및 심사위원 : 추후발표

시상 : 각 분야별로 당선작 시상

외 대 학 보

GOLD STAR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럭키금성그룹
금성사
尖端技術 先導하는 技術금성 4半世紀

●금성대형컴퓨터시스템
25 금성사 창립 4반세기
이땅에 최초의 가전제품 생산이라는 기술의 효시를 이룩한 금성사—,
금성은 지난 4반세기동안 국내 기술산업분야에서 정상의 위치로 고도의 기술을 선도해 왔습니다.
금성칼라TV 미국공장(GSAD)준공을 통하여 이미 세계속의 금성이라는 도약의 나래를 펼치고 있는 금성사—.
2,000년대의 첨단기술에 도전하는 금성 의지는
사무기기의 자동화, 중형, 대형 컴퓨터의 국산화,
로보트 산업화등 첨단의 전자공학은물론신비의 우주공학에이르기까지 무한한 미래기술산업을 앞당겨 개척해 나가고 있읍니다.
GOLD STAR

외자도입 적정규모와 상환능력

—외채문제의 계량적 접근

윤 정 현
<무역학과 4년>

Ⅰ. 문제의 제기

83년초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경제신문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한국을 외채상환불능국가로 분류하고 위험국가로 지목했다는 보도를 한 적이 있다. 그후 OECD 분석자료는 전반적인 개발도상국들의 외채누증문제만을 다루었을 뿐 한국 같은 특정국가를 외채상환불능국으로 평가한 사실이없는 것으로 밝혀짐으로써 이문제는 일단락 지어졌다. 그러나 지난 3월 경제4단체가 우리 경제의 외채누증의 문제를 공동으로 제기하였다.

즉 앞으로 외채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 나가지 않는다면 외채가 경제운용의 심각한 제약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대책마련이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의 외채량이 상당수준에 달하고있는데다가 세계적인 원유가 인하로 산유국들의 자금압박에 따른 국제 금융시장의 경색 (硬塞) 과 개발계획의 축소로 우리의 외화수입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에 주로 근거하고 있다.

물론 현재로서는 우리경제의 외채상환능력은 별문제가 없다는 것이 정부당국의 분석이며 또한 IMF를 비롯한 국제금융기관들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다. 즉 우리의 변동금리부 외채의 비중이 전체의 60%를 차지하고있기 때문에 최근의 국제금리 하락추세는 외채상환부담을 경감시켜 주는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기외채의 비중이 높고 경상수지가 흑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지금으로서는 우리의 외채구조에는 많은 허점이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외채의 소요량과 적정규모, 상환능력등에 관해서 계량적 접근방법을 통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Ⅱ. 외자의 소요량과 적정규모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은 경제개발의 초기단계에서는 국내저축이 부족하므로 투자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해외저축에의존해 왔다. 경제의 발전을 의미하는 자본의 형성이 농업부문에서 축적되어 타산업부문으로 이전되는 경우와 자원풍부국이 부존자원을 수출하여 부자재원을 조달하는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은 부자재원을 외국의 무상원조나 외채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특히 제2차세계대전후 개발도상국들의 경제발전이 정부의 개발계획 아래서 추진되어왔기 때문에 자본형성이 해외저축에 의해 많이 조달되어 왔다.

경제개발에 필요한 외국자본의 소요량과 적정규모는 다음과 같은 3가지 방법에의해 측정될 수 있다.

가. 저축-투자갭 접근방법

이 접근방법은 Harrod-Domar 의 성장모형을 변형시킨 방법이다. 저축과 투자, 그리고 국민소득을 각각 S·I·Y라 하고 목표성장률과 한계자본산출량비율(ICOR : Incremental capital-output ratio △Y/△K 즉 자본량의 변화에 따른 산출량의 변화율) 평균저축율, 그리고 한계저축률을 각각 r·k·s·s′라 하면 초년도의 외자소요액 Fo는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Fo = Io - So = k \cdot r \cdot Yo - s \cdot Yo = (k \cdot r - s) Yo$$

다음년도의 외자소요액은

$$F_1 = I_1 - S_1 = k \cdot r \cdot Yo(1+r) - [s \cdot Yo + s'[(1+r)Yo - Yo]]$$
$$= k \cdot r \cdot Yo(1+r) - s \cdot Yo - s'Yo - s' \cdot r \cdot Yo + s' \cdot Yo$$
$$= k \cdot r \cdot Yo - s \cdot Yo + k \cdot r^2 \cdot Yo - s' \cdot r \cdot Yo$$
$$= Fo + (k \cdot r - s')Yo \cdot r$$

위 식에서 외자소요액이 감소(Fo> F)하기위해서는 s′>k·r 즉 한계저축율이 목표성장율의 곱보다크거나 r<o 즉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될때 가능하다.

나. 수입-수출갭 접근방법

이 접근방법은 일국의 수입능력이 자본형성과 경제성장의 제약요소로 작용하고있음을 감안한 것이다. 수입과 수출을M과 E로 평균수입률과 평균수출률을 각각 m′와 e′로 표시하면 초년도 외자소요액은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Fo = Mo - Eo = m'Yo - eYo = (m - e)Yo$$

그리고 다음년도의 외자소요액은

$$F_1 = M_1 - E_1 = mYo + m'[(1+r)Yo - Yo] - (eYo + e'[(1+r)Yo - Yo]) = (m'e)Yo - m' \cdot r \cdot Yo - e' \cdot r \cdot Yo$$
$$= Fo + (m' - e') \cdot r \cdot Yo$$

따라서 외자소요액이감소(F 0> F₁)되기위해서는 m′<e′즉 한계수출률이 한계수입률보다 크거나 r<o 즉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될 때 가능하다. 이 접근방법은 수입과 수출에대한구체적인 추정이 선행되어야할것이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수입—수출갭과 저축—투자갭이 사후적(事後的 ex-post)으로 동일하게 된다. 즉 장기적및 결과적인 면에서는 실현된 저축과 실현된 투자와의 차이는 실현된 수입및 실현된 수출간의 차이와 동일하게 되지않을수없으나 갭의 애측에 있어서 경제행위의 사전적(事前的ex-ante) 개념을 먼저 생각해야 하므로 두 갭이 항상 일치한다고는 할 수 없다.

<외채부담 획기적으로 줄이지 않으면 경제운용의 심각한 제약요인이 될것이다.>

아울러 갭추정이론은 그안에 정책적인 희망치를 내포하고있기 때문에 무리한 외자의 도입으로 외채의 누증을 부채필할 위험성도 있다. 즉 수입-수출 간중 수출액은 예측보다 항상 감소의 경향이 있고 수입액은 증대경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수출은 최대량 수입은 최소필요량만을 책정하여 실제적으로 갭을 크게 할 위험성이 있다. 저축 투자갭에서는 저축이 예측보다 감소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 투자는 정책적으로 증대시켜 갭이 필요이상으로 확대될 위험성이 있다.

그러므로 수입-수출모델이든 저축-투자모델이든 그간의 차액을 외국자본으로 충당하려면 자연히 그 나라의 외국자본의 수용능력을 초과하는 정책적으로 필요한 양을 책정하였지만 실제로는 수용할 수 없는 그나라 특유의 적정규모를 초과할 위험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외자도입의 적정규모는 단순히 계량적 계산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외자수용능력을 아울러 관찰해야 한다.

다. 자본수용능력(capital-absorptive capacity)접근방법

자본이 투입되어 최소한의 투자효율을 올릴 수 있는 경제적 요건이 조성되어있을 때 여기에 합당한 외자소요액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여기서 수용능력이란 외자를 생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하는데 이는 결국 국가경제가 부가가치의 허락없이 추가자본을 흡수할수 있는 능력을 말하기 나는 외자의 한계수익률이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할인율과 금융율을 때까지의 경제능력을 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능력을 넘어선 외자의 도입은 유휴시설의 증대, 부가가치의 하락, 자본의 비합리적 배분산업간 균형적 성장의 저해에 의한 인플레의 야기등 부작용을 낳게 되고 외채만 누증시키는 결과를 초래케 한다.

일반적으로 생산적인 외국자본의 수용능력은 불충실한 사회간접자본, 경제구조의 왜곡, 비합리적인 기업경영, 보완적인 자연자원의 부족, 국내시장의 협소와 비합리적인 개발정책은 물론 사회관습과 정치적 불안정등 비경제적 요인에도 크게 좌우된다. 이와 같이 외자도입의 적정규모는 경제적및 비경제적제반요인에 의해 제한된다.

이러한 수용능력 접근방법은 저축-투자갭이나 수입-수출갭 접근방법이 자본수용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자본의 효율성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무가지 접근방법에 보완책으로 이용될 수 있다.

이와같이 측정된 외자소요액이 증장기 차관으로 도입되어 국내자본형성에 투입되었을 때 다음으로 문제되는 것은 외채의 적정규모로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국가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외채상환에서 아무런 하자 (瑕疵) 가 발생되지 않는 범위를 말한다. 개별적인 국가경제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외자도입의 적정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각 국가별로 조성된 경제여건과 경제개발 전략에 따라 그규모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Ⅲ. 외채상환능력

가. 국제수지면에서의 상환능력

외자도입이 부채상환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 국제수지상의 조달문제가 크게 대두된다. 원리금상환액이 신규차관을 초과하게 될 때 이 국가는 외채상환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상환액은 채무국의 실질소득과 저축에 부과되며 채무국은 상환액에 상당한 것을 수출증대로 극복해야 할 것이다. 부채상환의 순환단계에서 개발도상국의 국내저축은 모든 국내부자금 충분히 충당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누적된 차관이자와 원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충분한 자금을 조달해 줄수 있어야 한다.

잉여저축분을 외채상환에 필요한 외화로 바꾸기 위해서도 수출을 확대시키고 수입을대체할 수 있도록 국내자원을 재배분함으로써 충분한 수출을 증대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외국자본의 장기적생산성은 원금과 이자부담액보다 더 많은 실질소득을 산출시켜야 한다고보는 것이다. 즉 투자에 대한 전반적인 수익율이 이자율보다 낮고 한계저축율이 제고 (提高) 되지 않는다면 외채상환은 불가능하여 누적된 차관이자도지불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외채상환을 가능케 하기위해서는 종외환의 공급량은 상품과 용역을 수입하고서도 외채상환에만쓰 초과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외환소요액은 일국의 부채상환능력의 한도를 그 나라 개별계획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지 않고서는 측정할 수 없다. 즉 외채상환소요액을 변제할 수 있도록 투자액,저축및 환율이 적절히 조정될 수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도 그 나라의 전반적인 개발계획을 검토하여 수용능력을 평가해야 할 것이다. 더우기 일정부자계획이 국제수지에 미치는 효과는 투자가 행해지는 특정한 부분만 고찰해서는 알 수 없다.

이상에서 종가용자원과 이외이용, 투자의 상호의존성과 일국경제의 자원전환능력간의 관계를 보이는 바 외자도입에 의한 투자가 적절히으로 수입을 대체하고 수출을 확장시킴으로써 외채상환부담을 해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은 외국자본을 합리적이고 생산적으로 분배하는 것이 외채상환에 있어서 가장 우리할 것이다 이는 일정한 양의 외국자본으로 소득증가를 극대화시키기에 따라서 점증하는 외채를 상환하는데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 소득 저축 투자면에서의 상환능력

외채의 상환능력은 일국의산출량과 저축,소득,이자율과 관계가 있다. 기업이나 국가가부채에 대한 이자지급보다 더 많은 투자수익을 낼 수있어야 한다. 그러나 여러형태의 투자에서 오는 수익률을 정확히 측정하기는 어렵고, 또 수익률이아주 높다해서 원리금상환의 애로없이 차입을 마음대로 할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수도없다.

외자도입이 유리한가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이자율과 투자수익률을 비교할 때 투자수익률의 산출은 반드시 모든 산출물및 그 생산물을 생산하는 각 생산요소의 기회비용(機會費用)을 반영하는 가격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다른 조건중에서도 투자수익률은 국제수지의 균형을 가능케 하는 가격 즉 잠재가격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외환의 잠가격을 산출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하여 장기적 모델이 있다. 이 Husais모델에 의한 접근방법은 일국이 장차 이자부담인이 마모감당해 낼 수 있는 조건을 찾아내는데 사용된다.

최소한 이자부담인이라도 감당해 낼수 있는 수준까지의 잉여저축을 지니도록 해야 하며 대외부채가 국내생산보다 더빨리 커지지 않도록 해야한다. 어느 단계에서 이자가 국내생산을, 또는 국내저축을 앞질러 증가하면 반드시 파국을 초래하게 된다.

다음 성장률과 원리금증가율이 갖추어지는 조건을 알아보자.

$$i = \frac{r(S_a{}^e - S')}{S_a{}^e r - k \cdot r} \quad (주)$$

i : 위험이자률, r : GNP 성장률, $S_a{}^e$: 0년도의 평균저축률, S′ : 한계저축률, k : 한계자본산출비율(ICOR)

위 식은 장기적으로 대외 이자지불액과 GNP증가율과 동일률로 증가하게 되도록 제변수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적어도 위의 방정식이 충족되지 않는 한 채무액및 원리금상환액이 국민총생산(GNP) 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할것이다.

위의 모델을 우리나라의 경우에 적용해 보면 기준년도(1980년) 의 평균저축률을 21%로 보고 1982~1986년간의 평균성장률은 7.6%, 자본계수를 3:1이라 가정하면 위험이자율은 한계저축률이 34.9%일때7.2%가 되고 한계저축률(S′)이 높아지면 그 만큼 높아지게된다.

또한 여타변수가 일정하고 자본계수(k)가 높아지면 위험이자율(i) 은 그만큼 낮아지게 마련이고 한편 성장률(r)이 상승하면 위험이자율(i)은 정차 상승하게 된다. 그러므로 앞으로 평균저축률이 20%를 훨씬 웃돌고 자본계수가 4:1이상으로 오르지 않으며 또한 한계저축률이 35%이상으로 상승하게 되면 성장률 9.5% 이상을 유지하는데 최소한 차관의 이자율이 7%보다 낮게 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지금과같은 국제고금리시대의 차관은 외채누증의 필연성을 설명해준다.

Ⅳ. 결론

지금까지 외자의 소요량과상환문제를 계량적으로 살펴보았다. 개발도상국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외채상환문제는 단순히 계량적인 분석만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변수들의 작용이 상환능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해서 외채의 누증을 막고 상환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 그 나라의 경제성장을 공굔이상으로 증대시키고 둘째는 상품과 용역의 수출확대와 수입의 억제를 통해 국제수지를 개선시켜야 하며 세째는 국내 물가안정을 통한 저축을 증대시켜 국내부자만큼은 국내저축으로 충당할 수 있어야 하며 네째는 정부당국이 자국의 경제성장 애로점을 적시에 파악하여 효율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경제발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정치·사회·문화등 경제외적 요인의 안정화를 기해야 하며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외자기업제외 효율적 관리등 경제발전을 위한 간접적인 원조능력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규범적 결론들은 서술적 접근방법과 같다. 따라서 계량적 접근방법과 타방법과는 프리관계에 놓방하며 다만 계량적 접근방법이 제변수의 상호작용을 현시적으로 파악할수 있다는데 이것의 유용성을 찾아야 할 것이다.

(주) 이 공식의 도출과정에 대해서는 단국대학교 논문집 (1973) P 526~P 529 홍인철 논문 「외자도입과 상환문제」 참조할 것.

<참고문헌>

①이형순, 「경제학원론」 박영사 1977 P. 704~726
②박우희, 「차관의 정치경제학」신흥사 1982. 11.
③박병호, 「수출의 부진과활력」월간조선 1982. 11.
④전철환외, 「한국경제의 전개과정」을베개 1981. P. 165~198
⑤홍인철, 「외자도입과 상환이론에 관한 소고」 단국대학교논문집. 1973.
⑥KDI, 「외채현황과 문제점」분기별경제동향 1982 3/4분기
⑦—, 「최근 국제금융위기의 근본원인과 그 해결책」 19831/4분기
⑧한국 산업은행, 「우리나라 국민저축동향과 과제」경제브리프스 1982. 10. 30.

미네르바

▲「갈매기 조나단」이라는 영화가 있다. 이영화를 보면 「조나단」이라는 갈매기가 다른 갈매기떼와는 어울리지 않고 혼자 떨어져 날기 연습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대부분의 갈매기들이 바다위를 날면서 물고기를 잡아 먹으며 살아가는 생활에 만족하고 있을때 「조나단」은 머 멀리, 머 높이 그리고 머 빨리 비상(飛翔)하려는 비상(非常)한 생각을 갖고 이를 시도한다.

▲이영화에 나오는 두 종류의 갈매기—먹고사는 생활에 안주해 버린 대부분의 갈매기와 커다란 이상을 갖고 이를 시도 하는 조나단과 같은 부류—의 이야기는 우리가살고 있는 이 세상의 이야기인지도 모른다.

인간은 태어나 각기 꿈을 갖고 이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자기의 이상을 실현하지 못하고 먹고 살기에 바쁘다. 생활에 쫓기면서 아무런 깨어있는 의식없이 하루를 보내며 생활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자기가 이루려는 목표에 도달하는 사람은 극소수다.

▲인간이 삶을 영위하면서 자기의 하고자 하는 바를 이루려는 데에는 많은 적이있다.

외부의 여러 상황이 적이 될 경우도 많다. 그러나 우리의 이상실현을 방해하는 적(敵)중에 가장 큰 적은 자기 자신이 아닐까 생각한다. 자신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운명을 타개해 나가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미 높이 올라간 갈매기가 더 넓은 세계를 볼수 있듯 인간도 마찬 가지다. 생활에 쫓기면서 깨어있지도 않으면서 삶을 영위해간다면 다른 동물과 다를 바가 없다. 또 이현상황 속에서 자기 발전을 기대한다는것은 무리다.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면서 먼앞을 내다보며 미래를 설계해야 할 것이다.

비상(飛翔)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에는 많은 적이 있겠지만, 인간에게는 어떠한 덫가를 치루더라도 꼭 해내야 하겠다는 의지와 신념만 있으면 이를 이룰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내재해 있다. 우리는 의지의 힘을 믿어야만한다. 우리가 자기의 발전을 꾀한다면 이상을 좇고 동시에 행동해야 한다. 실천해야한다.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도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다. 사색인으로서 행동하고 행동인으로서 사색하기 좋은 계절이 온 듯하다. <훈>

사설

진실에 대한 인식

진실이란 거짓이 없고 바르고 참된 것을 뜻한다. 그리스 도교에서 본다면 <진리>를 일월음이요, 불교에서는 <헛되지 아니함>을 뜻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참되고 헛되지 아니함을 추구한다는 것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멋진 일이라 할것이다.

그러나 참되고 헛되지 아니함의 소재 (所在) 를 자기자신에게 거짓을 말하지 않는 자기 <안>에서 찾아야 할것으로 본다. 자기를 속이고 자신의 거짓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끝내는 그 속에 파묻혀 버려 그곳에서 영영 헤어나지 못하게 된다. 그런 사람은 거짓된 것과 참된 것의 선별을 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자신과 남에 대한 사랑마저 잃게 된다. 그것은 편집광적이고 파괴적이고 동물적인 결과를 낳게 하는 것이다.

론리를 거짓이 있으므로 해서 진실이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오직 진실밖을 바라고 느끼려고 하는 밝은 심성 (心性) 에서 본다면 거짓을 마음껏 해보겠다는 못된 심사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할것이다. 사람은 자신에게 진실하지 못하면 남에 대해서도 진실할 수는 없는 것이다. 자기에게 진실하지 못하면서 남에게 진실할 수 있다고 호언하는 사람은 바로 말을 쓴 자일 것이다. 우리는 지난날의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러한 거짓의 말을 쓴 자들을 많이 보아왔고, 또 거기에 희생된숱한 진실들을지켜보았다.

그러면 과연 진실이란 무엇일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그것은 하나의 개념음으로 보아야지 수학적인 논리에 의해서 설명될 수 없는 것일 것이다. 삶을 산다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논리 이전의 자연 (自然) 의 측면에서 보아야 할것이다. 그러기에 진리는 우리 손이 닿지않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앞에 전개되는 평범한 현실 속에서, 또 우리 인간의 평범한 마음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문제는 진실을 어떻게 깨닫느냐 하는 방법일 것이다.

어떤 사람은 현실사회의 모든 현상 속에서 그릇된 것을 보고 참된 것을 헤아릴 수 있을 것이며, 어떤 사람은 참된 진리를 찾는 과정에서 현실의 고난을 이겨내려고 할 것이며, 어떤 사람은 논리의 규범을 정해놓고 <참과 거짓>을 심판하려 할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은 조화와 합리 속에서 진실된 것을 찾으려 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더할 나위없이 귀중한 선택일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고도의 기술발전으로 인하여 날이 갈수록 새로운 경이적인 기계들이 탄생하고 있고 또 거기에 모든 가치기준을 두고 있다. 그 위대한 기계들의 탄생을 위하여 마치 이 인류가 수천·수만의 연륜을 이어오고 있는 것같은 착각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거기에는 삶의 의미도, 십자가의 의미도, 부활의 의미도 퇴색해 가고 있는 듯싶다. 어느 결에 실상 (實像) 이고 어느 것이 허상 (虛像) 인지 분별이 어렵게 되어있다. 그러나 기계는 과학적인 의미에서 성실일지는 모르겠으나, 인간과 자연의 실상일 수는 없다.

나! 외대인들이여. 인간과 자연의 참된 모습을 찾는 데 게을리하지 말고 또 방관자가 되지 말자. 우리 한번 미네르바 동산의 잔디 위에 드러누워 푸르디푸른 높은 하늘을 쳐다보자. 하늘이 무한한 공간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실상이다. 그러나 그것은 옛날 사람들이 말했듯이 커다란 둥그런 천장일 것도 아닌 것이다. 천냥히 무한한 공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늘은 완전한 둥근 천장이라고 한들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여기서 인간은 무리하게 무한한 공간을 인식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아름다운 둥근 천장을 바라보고 있는 편이 오히려 더 진실된 것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진실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교육 전환을 모색한다

——전통의 확산과 변혁에의 의지

6. 대학속의 보수와 진보

대학은 그 본질적인 면에서 변환을 요구받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그 외적인 요구를 수용, 이미 변환을 보이고 있다.

우리가 불변의 대학본질로 믿음과 함께 인식해온 고전적 이념, 즉 진리를추구하고 자유를 책임지더선(善)을 창조하려는 대학의 정신이 대학의 본령으로서는 그 외의에 변함이 없으나, 대학의 다른 기능에대한 부각과 강조로 인해 상대적으로 그 위치가 조금은 축소되거나 그빛이 퇴색되어가는것은 그러한 요구와의 대응에서 비롯되는 결과라 할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소 적절하지 못하나 대학의 보수와 진보를 구분지을수 있겠다.

즉 대학 본연의 이념들에 충실하며 대학의 상아탑적 독립성을 지키려는 주세를 보수라하다면 대학은 마이상 「나라안의 나라」라는 식의 기왕의 독립적이었던 자율성을 이제는 포기해야한다고 주장하며 대학의 사회적 기능과 봉사를 강조하는 입장을 진보로 보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의 진보를 우리가 통념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가치가 포함된 역사적 의미보다는 보수적이지는 않는다라는 소극적 의미나 보수의 단순한 대립적 의미로 해석함이 적절할것이다.

대학은 교육제도로서 성립된 이래, 절파 양적인면에서의 변화를 거치던서, 사회의 다른 영역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주적으로 초연한 <상아탑>속에서 진리의 탐구, 자유에의 책임, 또 그러한 이념속에서 전인형성이란 역할을 자기본질화 (化) 하였 탐적 이념들을 다소 위축시키고 대학자체를 변화시켰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변화는 「순수학문」 못지않은, 혹은 보다더 많은 「직업 전문교육」에 대한 강조로, 그리고 교육평정상의 자율성의 축소와 국가의 정치적 목표와 정부의 교육연구정책등에 의한 학문적 자유의 제약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요구는 대학은 국가나 지역사회에 기여해야하며 역사적 배경과 현실적 상황속에 대학의 기능은 적극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앞서 말한 <진보적> 인 이념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 <진보적> 주장들은, 대학이 진리탐구와 전인형성의 장으로서 순수학문과 치에서 편입시키는등의 양적인 팽창을 함으로써 이변화의 요구에 좀더 적극적이었다 할 수 있겠다. 물론 이러한 미국 대학의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 대학의 경우에서도 위와같은 긍정적 결론을 끌어내기는 힘들다 할 것이며, 오히려 짧은역사와 대학외적 조건들로인해 자기정체 (正体) 의 정립마저 확실하지 않다고해야 옳을 것이다.

즉 우리의 경우, 대학을 돌입없이 자국시켰던 정치적, 사회적 모순들, 그리고 대학을 양적팽창으로치닫게 했던 급속한 경제발전과 그에따른 산업구조의 확대등의 사회변동들로 인해, 대학의 내적 성숙, 자기정체 정립의 기회와 여유가 충분치 못했던 것이다.

이에더해 교육담당기관의 지나친 행정에 있어서의 통제및 감시, 일반적으로 사학의 경우 일부 재단의 지나친 관여등은 대학의 전통적 자율성을 확립하는데 저해요인이 되었다할것이다. 현재에도 이러한 대학외적 제약과 압력들은 대학이 전통적 이념을 고수하는 것에 호의적이지만은 않은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적현실속에서 계속되고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에는 <진보> 와 <보수> 의 논의에 앞서 대학자신의 자기규명을 확정시키는 것이 전제적으로 요구되어지며, 자기정체 정립의 문제는 대학인의 심각한 자성의 대상이 필것이고, 또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유를 책임지며 진리를 탐구하고 정의를 사랑하는 대학의 전통적 이념은 곧 대학이 인간의 가치를 지키는 유일한 곳임을 의미한다할때, 이 자기 정체의 정립의 방향은 이미 결정되어졌다할 것이다.

<환경선기자>

차 례

1. 프롤로그
2. 대학교육의 정착
3. 정보사회속의 대학
4. 캠퍼스의 반지성주의 종또
5. 유니버시티와 칼리지
6. 대학속의 보수와 진보
7. 대학은 사회공동의 재산
8. 대학원교육의 현주소
9. 에필로그

대학의 기능 이원화로 진보와 보수조화

상아탑적 전통성과 사회적 기능성이 보수와 진보로 대립

역사적, 현실적 생활속에서 대학의 기능 변환

기대되는 계절학교

——하기학교 운영 가능성을 알아본다

재이수기회 불충분한 제한학점제 시정 아쉬워

하기학교 개설, 학교측 의지가 관건

대학생활에서 가치성을 우선 순위로하여 나열해볼때 가장 우위를 차지하는 것은 학업이라고 할수 있겠다. 또한 대학생활을 영위해 나감에 있어 전공 이외에도 교양활동과 서어를 활동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러나이러한분위기속에서 졸업정원제라는 제도적하중(荷重)때문에 상당한 노력의 투여에도 불구하고 상대평가제도 등으로 만족할만한 학점을 받지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특히 본교의 경우는 한학기의성적평점이 2.5미만일때 제한학점제도를두어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있는형편이다. 이것이 담지학사경고나 제한학점으로 인한 다음학기 학점신청제한으로만 끝난다면 크나큰 무리가 없겠지만 이것이 누적되어져 취득학점 미달로 인해 졸업을 할 수 없는 사태까지 이르게 된다. 졸업정원제 세대부터는 후기졸업이 없어지게되므로 최소수우 학점인 140학점을 8학기동안 취득하지 못하면 학위를 받지 못한채 수료만으로 그치게 되어 사회진출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학점미취득이나 학사경고등이 수학(修学)할 능력이 없는데에서 연유한 것이라면 마땅하다 하겠으나 그밖에 학생스스로에게 태만이나 안일을 제재하고경고하는 의미에 그친다면모 졸업정원이 부족한 상태에서도 탈락이 되어야하는것은 문제따고 아니할 수 없겠다. 졸업정원제의 근본취지가 학생들의 탈락에있는것이 아니라 대학가의면학풍토 조성을 위함에있다는것을 모두가 인지한다면 실제로 운용의 묘를 살려서 그런 학생을 위한 하계학교등을 개설하여 근본취지를 살린도록 함이 좋을 것이다. 4학년가지의 수료로 끝나는 일생의 불운으로 떨어질되는 결과가 생겨서는 안될것이다.

이에대해 미학점 취득을 보충할 수 있는 대안으로 오래전부터 하기학교(Summer School) 설치의 필요성이 학생들에 의하여강력하게 요구되어져 왔는데 드디난 제반문제점을 인식 지난 4월 대학 총·학장회의인 「대학교육협의회」에 의해 대학입시와 학기운영 개선방안이 제출되었다. 이방안의 내용중에도 하기방학을 12주로 늘리며 하기학교 개설 전의의 내용이 충분히 수렴되어 있었다.

이것은 많은 학생들의 바램을 구체화시킨것으로 대학 자율성의 일보전진으로 평가되었다.

그런데 예(例)의 하기학교를 운영하려면 현실적으로 몇가지 어려움이 있다.

교수의 연구기간의 단축부터 큰 난제이도 불구하고 수업을 받아야 한다는 불편등 경쟁강의와는 달리 학조건이 많이 있어 설치의 제약요인이 필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문제는 졸업정원제 실시이후 늘어난 학생수로 인해 실제 운영할수 있는 「여력」 이 있느냐이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은 학교측의 노력여하에 따라 해소되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 하기학교를 개설하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전에 있었던 하기특강의 수준을 벗어나는데 중점을 주어야한다. 단지 학점을 취득하는데 목적을 두기보다는 본교에서 부족시되는 교양강좌의 보충면에 특히 강조되어야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 실력있는 교수의 충원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시행되어져야한다.

현재 본교에서는 『아직 문교부의 지시사항이 없다』는 핑계 학력상의 이유로 「하기 학교를 개설할 소집단 연구실이「그동안 없었던 틈이 주어졌다는점 외에는 별로 장점이 눈에 띠지 않는다」는 러시안스 퍼디그룹의 S군(R 3) 의 말처럼 장소제공에 못지않게 목적에 맞는 실내의 시설보완문제가 요청되고 있다 하겠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서로 독립성을 유지하고 상호간에 불편을 주지않기위해 이동식 칸막이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의 불필요한 불편들의 제거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있는데 지난해 통역협회가 기증한 탁구대나 온수기, 싱크대등이 그대로 방치돼 있어 연구분위기를 한층 더 흐려놓고 있는 실정이다. 또 이용시간에 있어서도 방과후 오후 5시~8시가 적정시간임을 강안할때 필요에따라 시간을 연장 조정하는 방안도 학생들은 아울러 기대하고 있다.

<이경진기자>

외면당하는 스터디룸

——환경개선 필요한 소집단 연구실

소집단 연구실에대한 환경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당초 5~8명 정도의 소집단 학생들이 모여 학술, 예술, 종교분야등 다방면에 걸쳐 보다 깊은 연구를 도모키 위해 지난 81년에 마련된 소집단 연구실이 근래에 들어 놀이나 사용자에 비해 환경이나 시설면에 있어 연구실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있다. 현재, 「국제 경제 학회」를 비롯해 42개의 연구그룹이 요일별 시간별로 나누어져 연구실을 이용하고 있는데 연구실 자체가 안고있는 문제점들로 인해 적지않은 어려움을 겪고있다는 것이다.

우선 학생들이 빈번히 드나드는 휴게실과 구내다방앞에 연구실이 위치하고 있어 각종 소음공해는 물론 이에 휴게실의 역할이 병행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레비레이트그룹」의 회원인 A과 1학년 Y군은「요일별로 룸이 배정되어 있지만 실제 이용시간에 가면 개인별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방해가 되거나 서로 불편을주는등 허가의 학생들의 통제방안이 아쉽다」고 피력한다. 시설면에 있어서도 탁자와 의자외에는 특별한 시설이 없어 2그룹 이상 동시에 사용할 경우, 다른그룹의 대화내용이나 행동이 그대로 보여져 상호입장이 난처할때가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학생들은 이에 연구실을 외면하거나 실외벤취, 미네르바동산등을 이용한다고 한다.

이에대해 학생처의 한관계자는 「소집단이 자율적 모임임을 감안할때 현재로써 소집단 연구실을 보완하거나 특별히 개선할 부텃한 이유는 찾을수없다」고 전제, 그러나 「만일 학생들이 연구실이 필요한경우, 사용신청만하면 빈 강의실 사용은 허가해줄 용의가 있다」고 밝혀 소집단 연구실에 대한 실제적 대책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발전을 위한 대전제

——호국단일원사표를 통해본 대화부족의원인

학교와 학생,대화통한 공동노력 아쉬워

제도상 규정된 업무적 통로 대화부재의 한원인

장기적 국면으로 접어든 학교측과 종단및 단과대학 호국단간의 시소는 어떠한 관건에 대해서라도 구체적이거나 실질적인 해결없이 아직도 제자리걸음만을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난제의 원인에있어서는 그나름대로 상당히 많은 과제를 안고있는데, 우선적으로 학교측과 종단 단과대학 호국단간의 상호연계에서 시원한 통로를 제시하지 못한데 있다 하겠다.

일의 효율성을 위해 전결권 있는 담당자와의 대화로서 어느 정도 타협안을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책임자와의 대화의 장구는 아주 미비한 상태에 있으며, 더우기 종강과의 대화에 있어서도 「종합생장만이 종장과 대면 가능하다」는 원칙의 고수는 「일의 체계화」를 의식한 것이겠지만 복잡다단한 학생들의 다변적 의견 수렴에는 커다란 공백으로 작용할수밖에 없다.

예컨대, 단과대학생장들은 「책임있는 전결권자와의 공식대화는 거의 할 수 없고 다만 해당 교학과를 통해 제반문제를 건의할수 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불필요한 제도적 장치로 인해 해결로 가는 통로를 차단하게 되는 엉뚱한 결과를 낳을수도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제도상으로 규정된 업무적인 통로때문에 발생하는 또다른 문제는 「서클」에서도 학교와의 직접대화가어려운실정이다.

82년도 하반기 각 서클에서 서클장이 모임을 가져 서클연합회를 구성하여 이러한 불편한 문제점 및 밖의 제반문제를 최소한 줄인다는 취지하에 대화통로의 다변성을 향한 노력을 기울여보았으나 무텃하지 못한 이유를 들어 학교측은 「불법」이라고 규정지었고 이 규정아래 서클연합회는 무산되어 버리는결과를 빚기도 했다.

현재까지, 각 서클학생들의 거의 대부분의 의견이나 건의, 대화등은 종단을 통해서만 전평되어 왔는데 이는 학생들에게 의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불만을 가져왔으며 또한 건의안은 서식상으로 단계적 결재를 받게되어 전평상에있어서도 신속성이 결여되기도 하였다.

더우기 모든건의안은 종단을 통해야만 가능하기때문에 결과에 있어서도 종단의 추진여하에 따라 결정되기도 하는바 이 건의안이 종단 자체적으로 시급한 해결을 요하는 직접적인 문제가 아닐 경우, 미온적인 전평을 초래해 당사자인 각 서클은 또 하나의 벽을 의식하지 않을수 없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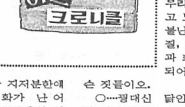
여기서 또하나 난관은 각 서클이 제출한 건의안 또는 의견등이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거쳐 해당부처로 이속될지라도 타협 정부처와 연관성있는 건의안일 경우에는, 해결을 위한 우선적 추진이나 모색이아닌 「타 행정부와의 협의」라는 이유로 해결이지연되거나, 「타 행정부처로 문제 이속」 등과 같은 사례를 빚기도 한다.

학교, 종단, 단대호국단, 서클등의 대화에서 사실 어떠한 구체적 제반문제의 해결이 아닐지라도 모든부처와 학생들의 상호접촉도는 대화는 업무적 접촉이 아니라도 인간적측면의 대화의 창으로도 발전할 수 있다고본다. 따라서우선적으로 학교측은 대화의창을 넓히는 적극적인 자세가필요하다 하겠으며 이같은자료의 확대로 활성화된 학교행사, 종단 및 단과대학의 소신있는 기획과 서클활동등 전체학생을 위해 직접적 대화통로의 다양성이 요구된다 하겠다.

현재 종합대학교 승격이후, 학교행정의 확산등 여러면에서 조정될 입장은 온것으로 보이는데, 단대의 규모증대등을 감안, 대화창구의 특이 넓어질 필요가 있다 하겠다.

따라서 학교와 호국단은 「학교발전이란대전제」를 감안해 서로가 대화를 통해 모든것을 해결해나가는지혜를 가져야 할것이다.

<기획부>



교수님의 눈물

○…『스승의 은혜는 하늘같아서…』촉촉히 젖어드는 음성이초하의달빛을 타고 흐르는 늦은 밤, 모파 수업시간은 감흥의 파노라마. 학생들이 준비한 뜻밖의 카네이션과 선물을 받아든모교수님의 만면은 눈물로 홍수를 이루었다고….

이날 머금은 카네이션(?)만큼이나 아름다운 풍경은 아직도 사제간의 정이 건재함을 보여주니 필경 사도 (師道) 가 사도(死道) 가 아님은 증명된셈.

○…별로 해놓은 일도 없이세월은 흘러 벌써 오월 성하(盛夏)를 맞히는 무더위에 시원한 물줄기를 찾아온 이들로 분수대앞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데….

인달수도 아닌 분수대 앞은왜에 사람떼지는제사형사가 있어 지나던 흡산들의 호기심을 잔뜩 자극시켰는데 젖궂은 흡산들이 애꿎은 흡산을 모욕 (?)시키는 장면이었다고.

무얼 그리 애타게 바라길래사람떼짐이 필요했는지 아리송하지만 촛불의 철학처럼제등을던져야천지신명도감통하지않겠소.

○…요즘도처, 모처엔남성을유발나게 따르는것들이 떼지어양육되고 있다는 후끈한 소문이파다해 크로니클자 놀랬세라 달려갔더니.

남성 전용 화장실에 애란용 파리가 들끓어지나는 행인과의충돌사고를 빈번히 일으킨다는조금 지저분한데가. 파리와 부딪쳐 화가 난 어느 흡산 왈 「조용, 조요용히 살게해줘요….」라고 하며라고, 여보소! 파리선생 시다.

○…요즘 운동장은차고, 달리고, 넘어지고,소리지르는 법상체전이 한창인데 여기에 삿대질, 주먹다짐까지 가세해서 불만하다고, 알만한 모모과꺼리의 혼신을 다한 속구장기가 처절했을것은 변함 사실이지만 심판과의 실점까지 힘약했다니 보고만있어서는 안될 일인듯.

결국 물수 게임에 어부지리를 얻고 돌아서린 한흡산 「그누가 심판을 공정하다우겨도 심판은 우리 편」이라고 노래까지불러 불난 집에 부채질, 쯧쯧! 단결과 화합의 장이 되어야지 그 무슨 짓들이오.

○…청대신 탑인지 백주대신 사이다인지 그말이 그말일 터이지만 5월의 싱그러운어느날밤 상징탑 옆의 잔디밭에서 치솟은 난데 없는 불꽃에 미네르바여신 잠을 깼다고 노발대발. 축제 무산소식에 속병난 흡산들의 「미니 캠프파이어」였을거라는 물증없는 심증만이 난무하고 있는데.

축제 없었다 분통해하는 속없는 흡산님들 평대신 탑찾은 의로운 외침이야 이해가 가지만 축제해봐야 별것 없답디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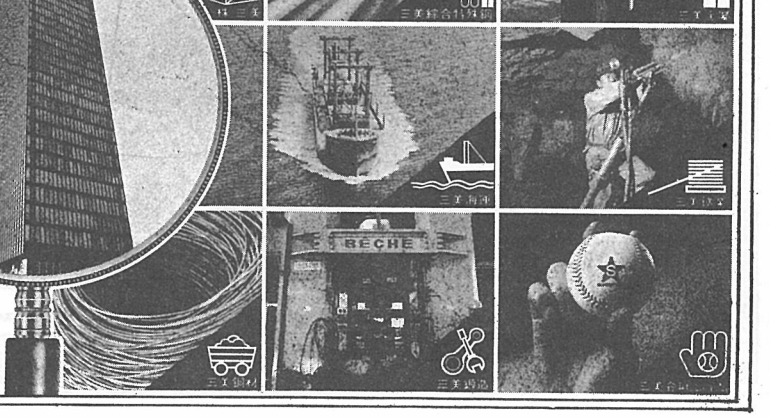
○…「하겠다」「못한다」「돼 못하느냐」「돼 하필 그날이냐」등등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 밑고 당기는 입씨름이 17일까지 계속되었다는데.

다른 날도 아닌 하필 그날 야유회건 논의 명목으로 「긴급소집」을 알리려는 광주향우들의 공고문을 두고 벌어진 일. 결국 「식당에서 조용히 밥만 먹기」로 타협을 보았다는데 그 밥먹는것 구경하러 들려간 초대받지 않은 손님(?)들의 심작한모습들은 한층 가관.

조용히 밥만 먹기로

三美의
참모습을 아십니까?

三美? 프로야구의 三美슈퍼스타즈라면 다 알고 계시지만, 三美그룹의 참모습을 정확히 아시는 분은 드문 것 같습니다. 그것은 三美가 30여년동안 생필품, 소비재보다는 원자재, 기간산업분야에서 일해왔기 때문입니다.
三美는 82년도 매출액 5,750억원을 기록했으며, (株)三美, 三美종합특수강, 三美해운 등 10여개의 기업이 각 분야의 선두대열에서 선진조국창조의 역군으로서 사명을 다하고 있읍니다.



□ 주식회사 삼 미
□ 삼미해운주식회사
□ 삼미광업개발주식회사
□ 삼미단조주식회사
□ 삼미전산주식회사
□ 삼미유나백화점
□ 삼미종합특수강주식회사
□ 삼미금속주식회사
□ 삼미강재공업주식회사
□ 삼미조선주식회사
□ 재단법인 삼미문화재단
□ 주식회사 삼미슈퍼스타즈

三美그룹

세계의 낭만주의

민 용 태

<서반아어과교수>

자유는 나의 신

낭만주의는 반항과 고발, 방종과 저항의 물결이다. 낡은규범과 틀에 짜인 형식, 윤리 앞에 생명의 절규로 맞선다. 정치고 철학이고 예술이고 프랑스 혁명이고 루소고 빅토르 위고고 할것없이 그들의 신은 자유다. 자유주의의 개가가 프랑스 혁명이라면 「문학에 있어서 자유주의」(Le libéralisemen Littérature—Hugo)의 승리가곧 낭만주의다.

나의 재산은 나의 배 하나
나의 신은 자유
나의 법은 힘과 바람
나의 유일한 조국은 바다.

이것이 스페인 낭만주의의대표적인 시인 호세 에스프론세다의 <해적의 노래>의 한 귀절으로, 이성과 헛된논리로써는 공허한 문학을 쳐부수고생명의 고통으로 파도치는 바다. 관습과 타부와 위선으로 뒤범벅된 사회에 태초의 생성의 목소리로 맞서는 저항의외조국이다.

그러나 에스프론세다의 조국은 해묵은 비리와 타성과 비겁앞에 고통으로 얼룩진 전쟁터이기도 했다. 1808년에 바다호스의 한 마을에서 태어나 마드리드에서 <로스 누만티노스(Los numantinos)>라는 비밀단체를 조직한다.

그사건으로 <구아달라하라수도원>에서 감금생활을하던 그는 관 포르투갈로 떠난다. 거기서 떼레사라는 연인을 만나게 되는것이 그의 일생의 사랑을 결지하게되는 대사건이다. 그녀를 따라 그는 런던으로간다. 정치에 손을댄다. 대 프랑스혁명(1830)에 적극 참여한다. 고국에 돌아와 페르난도 7세 왕에 반대하여 혁명을 시도하다 실패한다. 그러나 그가 다시 파리에 돌아왔을때 떼레사는 이미 다른남자와 결혼한뒤다. 에스프론세다는 두말없이 그녀를 납치한다. 1832년 사면(赦免)이되자 그는 고국에 돌아와 정치에 참여하여공화당의원이 된다. 한동안 정치에 열을 쏟는다. 또다시 떼레사가도망간다.

모든 것을 버리고 그는 그녀찾아 떠나고, 다시 그녀를 찾아서 회유를 한다. 그것도 얼마 못가서 그녀가 결정적인 도피 행각을 벌인다. 결국 에스프론세다는 1839년 그녀의 시체에서 통곡한다. 그후 3년뒤 자신도 설흔 네살의 한창 나이로 병들어 죽는다.

한때 너는 유리알같은 강물이었지
그 깨끗하고 순연한 물줄기.
그뒤 너는 그늘진 색깔의 여울물
바위 사이며 가시밭길이며 마구 흘러넘쳤지.
마침내 너는 썩은 물이 잠긴 연못
부패한 진흙 속에 고인 그런 물····

이것이 에스프론세다가 <떼레사에게 바치는 노래(Canto a Tereresa)>에서 그녀를 회상하는 귀절이다. 아름다운 사랑의 꿈이 현실과의 충돌로 썩어가는 뼈아픈 신음소리가 작품속에 되살아난다. 이 작품의 마지막 귀절은 한 낭만주의 시인의 격정의 한계와 비극성을 웅변으로 대신하는 절귀다.

태양은 찬란히빛나고, 또꽃은
젖피는 계절 속에 온 들을 물들인다.
내 마음 깊은 곳의 고통이여
웃음되어 피어나라····

세상에 시체 하나 더 있기로 이제 누가 상관하랴.

에스프론세다에 있어서 정치와 도덕은 정열과 사랑과 감정이 지배하는 행동 영역이다. 실패와 좌절로 얼룩진 그의 일생은 바로 그의 낭만주의자적인 기질이 빚어낸 문학 자체다.

<살라만카 대학생>(1840)이라는 장시에서도 그는 돈환적이고 충동적인 주인공과 부드럽고 여성적이기만 한 연인사이에 빚어지는 사건들을 극적인 텃치로 전개해나간다. 그러나 비극은 인생 어느 곳에나 도사리고 있다.

그는 삶 자체에 대한 실의에 빠진다. 극단적인 염세주의자임 그는 <오직 무덤 속의 평화만을 믿는다>

순결하고 깨끗한 여인들을 보았지.
하늘스런 광휘속에 하얀 구름을 헤치고 나타나는.
내가 그녀들을 만지는 순간 그 순결은
연기와 흙탕물로 섞여들어가는 것을 보았지.
나는 내 꿈이 사위어가는 것을 느꼈어
나의 욕망은 영원한 목마름인채
그는 현실을 맛보고 삶을 증오했지
이제 오직 난 무덤속의 평화만을 믿어····.

오 잔인한 운명의 여신이여

레오노 아가씨를 사랑하던 돈 알바로는그녀를 납치하려다 절뚝하여 그녀의 아버지를죽이는 살인자가 된다. 이태리를 도망간 알바로는 또다시 결투에서 적해온 로오노르의 오빠를 결투에서 죽이게 된다. 돈 알바로는 스페인에 돌아와 어느 수도원에 들어간다. 우연히 그수도원은 레오노르가 아무도 모르게 숨어 사는 마을 근처다. 돈 알바로를 추적해 온 레오노르의 동생 오빠도 그와 결투끝에 상처를 입는다. 오빠를 구원하기 위해 레오노르가 달려온다.

오빠 알폰소는 그녀가 옛 애인과 공모한줄 알고 레오노르를 죽인다. 절망에 찬 돈 알바로는 절벽에서 떨어져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지옥이여, 입을 벌려라. 그입으로 나를 송두리채 삼켜다오. 하늘이여, 무너져라. 인간이라는 종자여, 파멸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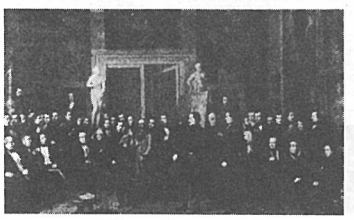
이것이 잔인한 운명의 장난앞에 죽음으로 저항한 낭만주의자의 행동이다. 리바스 공작(el Duque de Rivas) 의 돈알바로(1835)의마지막장면이다.

낭만주의는 인생을 해결이없는 영원한 미궁으로 본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인간 세계를 지배하는 어떤 초자연적인 불가항력의힘이있음을감지한다.

즉슬 너머 우리를 지배 하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동경 하는 것도 그들이었고 그 미지의 힘에 의해 희생되는 자신의 비극을 가장깊게 체험한 것도 그들이다. 스페인의 낭만주의에는 늙던 운명의 장난에 제물로 바쳐진 주인공들이 너무많다. 마르퍼에스 데 다 로사(1787~1862)의 <베니스의 예언> (1834)의 주인공, 베르디의 <음유시인(IL Trovatone)>의 페마를 제공한 가르시아 구띠 에메스(1813~1884) 의 <음유시인> (1836)만다메, 그리고 하르펜부러 (1806~1880) 의 <떼투얼의 연인들>그것이다. 특히 떼투얼의 연인들>은 스페인 낭만주의 연극의 절작으로 이야기는 이러하다.

디에고 마르시아는 여인이사빨에게 부자가 되어서 돌아 올때까지 결혼하지 않기로 약속한다. 그가 없는 동안 이사벨은 가족의 강압에 못이겨 결혼하게 된다. 발렌시아 여왕의 명령으로 귀향이 늦어졌던 디에고는 이 소식을 듣고 고통속에죽어간다. 옛 애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그녀도 또한 죽고만다는 이야기다.

낭만주의 연극에 그토록 많은 자살이나 결투나 복수나 하는 것도 사실은 이런 운명의그림자가 거쳐간 흔적들이다.



—낭만주의 시대 소필야의 시남독 장면.

<다음호에 계속>

이문동에 쌓인 문학혼

—30개 성상의 외대문단사

4. 스페인 I

강 화 석

외대문단형성 초기단계가 최초의 난감했던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부단하게 이루어져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당시의 문인들이 그를 나름대로의 문학의 노정에 대한 열의와 고통을 자신의 일부처럼 전지하게 받아들이면서 끊이지않고 창작하고 사고하였기 때문이다.

초기문단을 대표할 수있는 강인섭씨, 롱윤기씨, 이유경씨, 이만서등의 시인들은 각기 자신의 개성과 개인적체험을 고집스럽게 추구하면서 그들의 서로 새다른 문학세계는 상호적인 관계가 외부로 노출될 때에도 변함없이 깊어질 수있고 어떠한 방해도 받음이 없이 폭넓은 문학적행위를 가능케할수 있다고 믿었다.

초기에 서정적인 계열의 작품을 쓰던 강인섭은 다양한 시선을 통해 폭넓은 세계에 접근하려는 태도가 엿보이는 그의 첫시집 「녹슨 경의선(1969)」을 발간함으로써 그의 소재와 시작의 넓이는 그의 관점이 개인적인 아집에 달려있음이 아니라 자신을 포함한 주변의 모든 대상에 대한 깊은 애정에서 발로되는 것임을 드러내고 있으며, 꾸준한 시작(詩作)활동을해오고있는 이유경은 최근에 발간한 「초락도(草落島, 1983)」를 비롯, 「밀알들의 영가(1969)」 「하날시편」 등의 시집을 출간했고, 1976년엔 제회의 한국시협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대체로 데뷔이후로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이만은 현재까지 4권의 시집을 출간했고, 여러번의 동인지에도 참가하였는데, 1967년 첫시집 「나 밤불다」를 시작으로 「소동(1968)」 「들풀기(1979)」 「울지않지않는 새(1979)」 등의 시집을 발간했고에 데뷔 4년만인 1968년엔 제 2 시집 「소동」으로 제 3회 「월탄문학상」을 수상했다.

이처럼 위의 문인들이 외대라는 문학적 공간을 발판으로 자신의 문학을 펼쳐하면 시기 이후에도 계속하여 보여주는 문학세계는 커다란 변모를 드러내지 않은채 내면의 깊이로 성숙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할 수 있으며, 그들의 폭넓은 소재선택, 시선과 머물어 그들이 보여주는 시의 정통성, 문학의 정통성은 그들의 문학의 표현이 다작(多作)으로 나타나지는 않더라도, 그들의 문학적 증량은 언제나 빛을 발하고 있다는 신뢰감마저 주고있다할 것이다.

이러한 때에 한국문단에서가 아니라 중국문단에서 활동을 시작하여 조명을 받고있던 시인이 있었는데 그는 바로 1958년 외대를 졸업하고 군복무 후 1960년부터 자유중국에 유학하고 있던 허세욱 (중어과 1회)씨였다. 그는 외대가 처음 개교한 곳인 영보빌딩가교사시절부터 외로이 문학에의 열정을 실현하려 노력했었는데 그의 개인적인 환경은 「7인회」 이전의 시기로서 「7인회」 때보다 더욱 난감한 상황이었음은 말할나위 없었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상황이 이때가 1961년의 일로서 명자(名字) 월(顚) 이라는제하의 중국어로된 이 시들은 추천을 통한 정식 문단 데뷔작품이 되었으며, 그당시 한국문인으로서 외국문단에 등단한예가거의 없었던 상황에서 그의 이러한 등단사실은 대단한 주목을 요하게 됐다.

1968년경까지 중문시로 활동을 계속하다가 귀국한 다음해인 1969년에 「청학」이란 첫시집을 발간하면서 비로소 한국문단에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의 동양적인 태도에 의한 현실투시, 자연관, 인생관 등이 그대로 드러나는 첫 시집이후 1980년의 「땅밟으로 흐르는 강」에서 보여주는 확대된 시적관심은 그의 오묘한 동양 미에 문학적 충들을 자각하게 된 것이기도 했다. 당시 중로가교사근처의 「백마다방」에서 문학에 뜻을 두고있던 배광남씨 (노어과 1회 · 전통아일보기자 월남종군중 사망) 현재 부울블록기인 이순열씨 (F—1)등과 자주만나 문학을 이야기하고, 이때를 「백마시대」라고 불렀던 이들은 그것이 오래지속하지 못했고, 대외적인 명분을 제시하지못했기때문에 7인회보다 앞선 활동으로 주목받지 못한 이유가 되었다.

아울든 자유중국에서 유학을 시작한 허세욱씨는 당시외개인적인 생활외고독감에서 벗어나고 문학에 대한 그의 욕구를실현하고자 중문시 투펴를 자유중국의 저명한 계간지 「현대문학」 봄호에 발표하게 되었다.

문학에 대한 열의·고통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이때가 1961년의 일로서 명자 (名字) 월 (顚) 이라는제하의 중국어로된 이 시들은 추천을 통한 정식 문단 데뷔작품이 되었으며, 그당시 한국문인으로서 외국문단에 등단한예가거의 없었던 상황에서 그의 이러한 등단사실은 대단한 주목을 요하게 됐다.

1968년경까지 중문시로 활동을 계속하다가 귀국한 다음해인 1969년에 「청학」이란 첫시집을 발간하면서 비로소 한국문단에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의 동양적인 태도에 의한 현실투시, 자연관, 인생관 등이 그대로 드러나는 첫 시집이후 1980년의 「땅밟으로 흐르는 강」에서 보여주는 확대된 시적관심은 그의 오묘한 동양 미에 문학적 충들을 자각하게 된 것이기도 했다. 당시 중로가교사근처의 「백마다방」에서 문학에 뜻을 두고있던 배광남씨 (노어과 1회 · 전통아일보기자 월남종군중 사망) 현재 부울블록기인 이순열씨 (F—1)등과 자주만나 문학을 이야기하고, 이때를 「백마시대」라고 불렀던 이들은 그것이 오래지속하지 못했고, 대외적인 명분을 제시하지못했기때문에 7인회보다 앞선 활동으로 주목받지 못한 이유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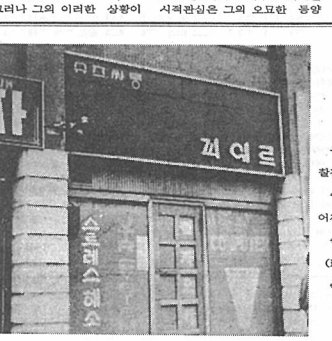
아울든 자유중국에서 유학을 시작한 허세욱씨는 당시외개인적인 생활외고독감에서 벗어나고 문학에 대한 그의 욕구를실현하고자 중문시 투펴를 자유중국의 저명한 계간지 「현대문학」 봄호에 발표하게 되었다.

「산중(1983)」 마지막 연)

이와같은 선적인 자세의 표현을 통해 그는 시대적 현실인식과 시적인 탈관이 잘 조화된 시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그의 시적태도는 구체적 외미로 다시 표현하면 일단 자연에 가탁 (假託) 함으로써 현실과 자신에 대해 보호받고자 하는 의도이며, 시앞에서 만큼은 진실하고 싶어하던서, 자연이란 철저한 은유물을 통해 그의 현실에 대한 체념과 인욕을 감내하는 것이라할 수있다.

이는 불교적경지에의 접근과도 상통하는것이며, 「현실도피」나 「거부」라는 의미와는어느정도 거리가있는 의미로 보는 것이 옳을것이다. <불어과 · 4>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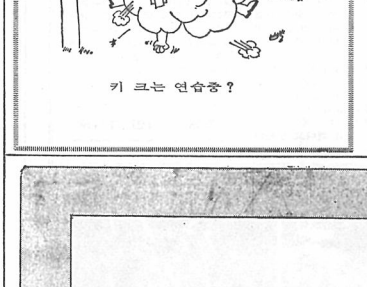


시와 사진

우리가 삶고있는 공간에서는
참된 휴 한점 찾기 어렵다.
수긍할 수 없는 파편들이 흩
어져있는 거짓의 거리에서,
순간의 쾌락을 위해 이상
(理想) 을 괴멸시켜간다.
속다른 외미를 지닌채로····

글·사진 김명진 기자

외대만평



키 크는 연습중?

역사의 현장에 서서

—조양욱 지음

구로다 가쓰히로

<교도 통신사 서울 지국장>

서울 특파원이란 말에서 생각나는 것은 「모정」이라는 미국 영화이다. 아마 1950년대의 영화였으니까 꽤 오래된 영화이다. 이것은 윌리엄 홀덴과제니퍼 존스가 주연인데 한국동란때종군기자였던 W·홀덴이휴가로 홍콩에 가서 J·존스와 사랑을 하는 이야기다. 마지막에는 W·홀덴이 전선에서 취재중에 사망하고 그 통지가 홍콩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녀에게 전해지는 슬픈 결말인 것으로 안다.

홍콩을 무대로한 아름다운 사랑과 종군기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대조가 극적이며, 그 주제곡과 함께 당시 매우 인기를 얻은 영화였다. 이 책에는 서울 특파원사의 하나의 피크가 된 한국동란때 종군기자들의 기록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그런데 미국계 특파원들은 이 한국동란이 실질적으로는 시작이라 해도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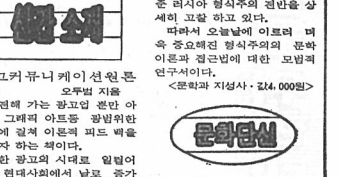
그리고 그들의 서울지국엔지금도 미군 전용전화가 있는 것은 그때 남은 것이다. 이것은 그들의 최대의 무기이며 국내전화가 끊어져도 그들은 이미 군전용전화를 쓰고 취재할수있고 뉴스를 보낼 수가 있다. 특파원에게는 통신선이 생명인데 이것이 없으면 특종기사도 죽어버리게 된다.

작년 KBS 텔레비전의 대하드라마 「풍운」에는 이조 말기의 한일 외교사를 그린 장면이 많이 나왔다. 민비 시해사건 때 쯤이었다고하는데, 민비 배제를 모의하는 일본인들 가운데 일본 신문기자—서울 특파원의 모습이 보였다. 일본신문들은 일종의 정당 기관지로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당시 기자들의 활동은 따라서 당시의 서울 특파원은 일본의 「조선책략」에 깊이 관계하고 있었다는 셈이다. 이 「풍운」의 광경은 서울 특파원사의 개막 부분인데 역시 이책에 어김없이 소개되어있다.

정경태의 종군기자도 재미있고 정치모략에 가담하는 것도 재미롭다. 한나라의 운명을 짜우하는 현장에 서는 것이니 특파원으로서의 가장큰 즐거움이라고해도좋을것이다. 이책은 그런 서울특파원들이 목격한 백년에 이르는역사의 현장이 생생하게 소개되어있고 하나의산한국의 현대사가 되고있다. 자기나라 역사를 외국인의눈으로통해서 본다는것은 역사를 보다 객관적으로 보는데 하나의 아이디어를 제공해 준다.

그런데 역사는 큰사건 만으로 움직이고 있는것은 아니다. 큰사건과 큰사건사이의 일방적인 일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다. 특파원들은 그러한 일상적인 일들을 역시 매일 기사로서 계속 보내고 있다. 흔히 사람의 행복보다 사람의 불행이 뉴스가 된다 한다고 할 수 있다면종군기자는 되고 싶지 않다. 또 정치모략에 참가하는 일도 사양하고 싶다.

※필자는 저자와함께 교도(共同)통신사에서한때같이근무했었다. 저자는 일어과 동문으로 현재월간「마당」지 기자로 일하고있다.



신간소개

광고커뮤니케이션원론
오두범 지음
발전해 가는 광고업 뿐만 아니라 그래픽 아트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이론적 피드 백을 주고자 하는 책이다.
또한 광고의 시대로 일컬어지는 현대사회에서 날로 증가돼 가는 광고의 과정과 기능을 경영적 보다는 경보와 설득의 측면에서 연구한 책이다.
<전예원 퍼낼 · 값6,500원>

인도사회와신불교운동
산기림일 (山崎元一)지음
전재성 · 하무성 번역
근대 인도의 위대한 선각자의 한 사람인 암베드카르의 신불교 운동을 소개한 것으로 암베드카르의 생애와 사상및 부록으로 카스트제도와 불가촉천민제에 대해 다루고 있다.
<한길사 퍼낼 · 값2,600원>

「러시아형식주의」
빅토르 어얼리치 지음
박거용 번역
프랑스의 구조주의와 미국의 신비평형성에 자극과 영향을 준 러시아 형식주의 전반을 상세히 고찰 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에 이르러 매우 중요해진 형식주의의 문학이론과 접근법에 대한 모범적 연구서이다.
<문학과 지성사 · 값4,000원>

문화단신

「결괴기담」
동방테피터리 극단은 마이클 커비 원작 「결괴기담」을 공연한다.
이 연극은 구조주의 연극으로서 신비의 영상무대를 연출하는데, 문예회관 소극장에서 5월17일부터 24일까지 오후 4시30분과 7시30분에 거행 된다.

「십이야」
극단 가교는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장막희작 「십이야」를 공연한다.
M·모어여사의 연출로 거행되는 이 연극은 6월26일부터30일까지 오후 4시30분과 7시30분에 세종문화회관 별관에서공연된다.

"친구가 잘 돼야 내가 잘 되지요"

함께 번영하는 길이 참된 번영의 길—
회사 동료들; 업무관계로 만나는 사람들, 거랭업체 사람들, 고객들, 소비자들, 그리고 게 경쟁회사 친구들까지—
이 모든 친구, 이웃들이 잘 되어야 나와 우리회사도 잘 될수 있읍니다.

國際그룹은 국가사회라는 보다 큰 그룹의 일원으로서, 모든 친구와 이웃과 사회가 다 함께 잘되는 길이 참된 번영의 길임을 명심하고 무역, 제조, 건설, 운송, 증권 등 많은 분야에서 共存共榮의 기업이념을 실천코자 슬기와 정성을 다하고 있읍니다. 함께! 함께 번영의 길을 갑시다.

國際그룹 대한민국 번영의 요람—
國際

國際海事/國際鋼鐵工業/國際綜合建設/元豊産業/國際綜合機械/東西證券/國際紡織/朝光貿易/國際商船/國際運輸/國際物産/東國化學/新東興紙工業/東宇産業/成昌鋼鐵/國際土建/國際綜合産業/大韓